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이 회 자 · 김 경 원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공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Lee, Hee Ja · Kim, Kyoung Won

Division of Human Ecology, Myong Ji Univ.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yong Ji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social development, and home environment. Home environment includes sex, father's vocations, mother's employments,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religions. 275 adolescents (186 males and 89 females students) were selected from middle school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arents' age, educational level, and religions. Also adolescents self-esteem was highly correlated wit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specially with mother-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Finally, adolescent development of sociality was highly correlated wit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but no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other-adolescent reverse-functional communication.

Key word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Social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Lee, Hee Ja

Tel. 033)330-6210, Fax / Tel. 033)330-6209

E-mail : hjlee@wh.myongji.ac.kr

I. 서론

인간은 대부분 가정에서 출생하며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물에 대한 태도나 생각을 발달시키면서 사회적 능력을 갖게 된다. 인간의 사회화 작용에 필수적인 것은 의사소통이다. 또한 최초의 사회화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으로 의사소통이 최초로 행해지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이 사회와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볼 때 가정에서의 경험은 인격형성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때 부모는 최초의 의사소통자(communicators)로 기능하게 된다.

Olson, Sprenkle과 Russell(1979)은 의사소통이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제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억제시킨다고 주장한다. Barnes와 Olson(1982)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분명한 의사소통방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며 상호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반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격변은 가정내 부모-자녀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또한 구조적으로 핵가족화 되어 가는 추세로 부모-자녀관계도 상호작용적이거나 동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이효재, 1984).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서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불안정감, 감정의 동요, 반항심, 때로는 죄책감, 부정감, 수치심 등이 따라 일어나게 됨으로써 매우 혼란스런 시기로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맞게 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되

면서 가족기능의 저하와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이 청소년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적 혼란과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Rueter와 Conger(1995)는 청소년의 인성발달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루며,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하였다. Kennedy(1971)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순조롭게 발달시키려면 부모가 자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감정적 지지를 보내며 자녀의 능력이나 독창성을 인정해주고 부모 스스로도 자기태도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Foley(1974)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되려면 부모가 개방, 공감, 지지,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조력자 또는 사랑의 대상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관계로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으로써 자녀가 자기행동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의 자아와 기대하는 자아사이의 부조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매체가 된다. 또한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의 자아존중감 개념이 중요한 시기로 그 개념은 자아존중감으로서 자아개념보다 단일한 차원의 개념으로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 특성이며, 개인의 성격 발달과 환경적응 및 긍정적 자아실현의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Ron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란 모두 자기평가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볼 때 자기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가족기능 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역할조망과 자아정체감 형성(권미경, 1992), 자아존중감(이진용, 1990, 이인영, 1993), 자아개념(석현양, 1983; 신수정, 1994), 내외통제성(김양숙, 1995), 문제행동(김경화, 1989)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환경이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상호작용하게 되고,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가족원간의 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독립성, 책임성, 사교성, 수용성, 동성심 등의 대인관계성향과 관련을 보이며(심혜영, 1992), 청소년기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김미호, 1989; 김영애, 1990; 김재봉, 1996; 서경옥, 1992).

환경변인과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이선자·정명숙(1979)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는 전문대졸 집단이 어느 집단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 생활수준에 따라서 고소득 집단이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경주, 1989; 김인희, 1993),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김진숙, 1984; 장호선, 1987; 박은주, 1994). 이금(1993)은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는 부정적 대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오연옥(1988), 김오남(1994)은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종교에 따른 의사소통에서 이결남(1989)은 자녀가 종교를 갖고 있을 때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쌍방향형식으로 한다고 하였고, 이경주(1989)는 어머니의 종교 유무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혜진·윤종희(1993)는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 회사원일 때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하였다. 오연옥(1987)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적은 집단에서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신수정(1994)은 형제 수가 적은 집단이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자아개념 또한 형제 순위가 첫째인 경우 평균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이현주(1990)는 성차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권혜진·윤종희(1993)는 성차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권혜진·윤종희(1993)과 신수정(1994)의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류인 집단보다 상류인 집단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인간이 평생동안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회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 학력, 종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인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한 기초자료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배경변인(성별, 부의 직업, 모의 취업여부, 부모 교육수준, 종교의 유무)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개방적, 역기능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배경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배경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성 발달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세대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김진희, 1989), 나아가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특성을 바람직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개념

의사소통이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Hovland(1953)는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communitor)이 다른 사람들(수용자)의 행동을 변용 시키기 위하여 자극(언어적 자극)을 보내는 과정”이라 하였고(신수정, 1994 재인용), 박연호(1980)는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측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Galvin과 Brommel(1982)은 가족 의사소통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상징적 거래과정” 즉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단일 의미를 상호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협동을 통한 사회 유지 기능으로 특히 현대와 같이 이질화되어 가는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역할은 중요하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조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특히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며 청소년의 사회화 교육에

2. 자아존중감 개념

자아개념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기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성들의 구조물이다. 이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단일한 차원의 개념으로서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의 관련된 개념이다. 즉, 자아개념은 판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서술적인 개념으로서 자기를 기술하는 행동특성인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에 속하지만 좀 더 개체가 자기특성에 대한 가치를 기술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의미한다. Wells와 Marwell(1976)은 인간의 평가적 태도가 종종 감정적 요소를 수반함을 주장하면서 자아존중감의 의미에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었음을 주장한다. 즉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평가적, 판단적, 감정적 요소를 내포하는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으로 간주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Long(1968)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나 중요성을 자아존중감이라 하였고, Ron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있다고 보는 개인적 가치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renden(196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란 자기신뢰(self-confidence)와 자기존중(self-respect)의 융화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였다. Cohen(1965)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적 개념과 실

제적 개념이 일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란 모두 자기평가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볼 때 자기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기의 사회성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사회 속에서만 온전히 생존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는 인간은 긴 시간에 걸쳐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립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한준상 외, 1996).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사회성(sociality)이라고 한다.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사회성은 2인 이상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된 것이며, 후천적으로 환경을 통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인간성, 인성, 성격과 구별하여 정의하기도 하나,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성, 인성, 성격 등은 동일한 개념으로 그 구분이 어렵다(김제봉, 1996).

사회성의 발달도 신체적인 발달이나 지능발달과 마찬가지로 출생후 16~17세까지 급속도로 발달하며 인간의 초기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기가 되면 자아가 형성되면서 주체성 혹은 정체성(identity)이 발달하게 된다. 이 때의 정체성은 동일시에서 점진적으로 발달되는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때 그때의 환경에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면에 실패를 가져오면 역할혼미나 아노미(anomi)현상에 빠지게 되며, 심한 경우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행동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화를 배우며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특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 사회성

을 길러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교육자, 기타 지도자들이 사랑의 마음과 덕성을 길러 주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위하여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1개 중학교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2개 중학교에서 두 학급씩을 임의 선정하여 질문지를 1998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에 걸쳐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그 결과 총 30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25매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5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정환경변인

가정환경변인으로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종교와 부모의 연령, 학력, 종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대상연령은 만 13세부터 16세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 186명(67.6%), 여학생 89명(32.4%)으로 나타났고, 출생순위는 대부분이 맏이(40.7%)나 막내(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가정환경 변인은 <표 2>에 제시되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아버지 219명(79.6%), 어머니 175명(63.6%)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버지 136명(49.5%), 어머니 170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종교는 아버지 152명(55.3%), 어머니 194명(70.5%)이 종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186	67.6
	여	89	32.4
출생순위	만이	112	40.7
	둘째	10	3.6
	막내	120	43.6
	외동	33	12.0
종 교	무	100	36.4
	유	175	63.6
	계	275	100

〈표 2〉 조사대상자 부모의 특성

구 분		부		모	
		빈도	%	빈도	%
연 령	30대	24	8.7	90	32.7
	40대	219	79.6	175	63.6
	50대	30	10.9	8	2.9
	60대	1	0.4	1	0.4
	70대	1	0.4	1	0.4
학 령	대 학 원 졸	24	8.7	3	1.1
	대 학 교 졸	79	28.7	51	18.5
	전 문 대 졸	12	4.4	4	1.5
	고 등 학 교 졸	136	49.5	170	61.8
	중 학 교 졸	17	6.2	38	13.8
	초 등 학 교 졸	7	2.5	9	3.3
종 교	무	123	44.7	81	29.5
	유	152	55.3	194	70.5
계		275	100	275	100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의사소통 측정도구로는 Haward Barnes와 David H. Olson(1982)이 제시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 PACI)를 민혜영(1990)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질문지는 부모 또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부모용 질문지(parent form)와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adolescent form)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개 문항으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 하위척도(open family communication)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하위 척도(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식으로 개방적 의사소통의 문항(1, 3, 6, 7, 8, 9, 13, 14, 16, 17번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에 5점을 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문항(2, 4, 5, 10, 11, 12, 15,

18, 19, 20번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주어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긍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개방적 의사소통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한 경우 모두 신뢰도계수가 .86으로 나타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는 .69, 어머니는 .67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는 강중구(1989)가 번안한 Coopersmith의 SEI(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0문항으로 된 A형 검사지와 25문항으로 된 B형 검사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B형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측정방법은 2점 평점 척도로 긍정문항(4, 5, 8, 10, 12, 14, 19, 20, 24번 문항)은 “그렇다”에 2점, “아니다”에 1점을 주고 부정문항(1, 2, 3, 6, 7, 9, 11, 13, 15, 16, 17, 18, 21, 22, 23, 25번 문항)은 “아니다”에 2점, “그렇다”에 1점을 주어 합산한 총점을 자아존중감 점수로 사용한다. 점수범위는 25~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척도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4) 사회성 발달 척도

청소년의 사회성 검사 질문지는 김학수·이윤수(1975)가 제작한 사회성 검사도구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2점 척도로 “아니다”는 1점, “그렇다”는 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성 발달 수준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5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문항전체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전체 20문항 중 네 문항(문항 3,4,7,18)을 제외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6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or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의 환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고,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을 밝혀내었다.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발달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환경변인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1) 가정환경변인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종교에 따라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개방적 의사소통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73, p=.055$). 아버지-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남: 3.27, 여: 3.08)은 역기능적 의사소통(남: 2.58, 여: 2.81)보다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중간정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출생순위나 종교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보면,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30대: 3.29, 40대: 3.18, 50대 이상: 3.17)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는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30대: 2.45, 40대: 2.80, 50대 이상: 2.95)은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F=4.99, p<.01$)을 나타내었으며 scheffe 사후검

〈표 3〉 가정환경변인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

변인	구분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F 값	평균(표준편차)	F 값	
성별	남	3.27 (.76)	3.73	2.78 (.59)	.13	
	여	3.08 (.85)		2.81 (.68)		
청소년	출생 순위	말이	1.35	2.76 (.62)	.18	
		둘째		2.80 (.44)		
		막내		3.22 (.79)		
		외동		3.36 (.99)		
종교	무	3.24 (.81)	.16	2.78 (.57)	.02	
	유	3.20 (.78)		2.79 (.65)		
부	연령	30대	1.56	2.45 (.73) a	4.99**	
		40대		3.21 (.79)		2.80 (.60) b
		50대 이상		3.06 (.65)		2.95 (.56) b
	학력	중졸 이하	.19	2.89 (.61)	.58	
		고졸		3.22 (.71)		2.75 (.53)
		전문대졸 이상		3.19 (.88)		2.81 (.71)
종교	무	3.26 (.79)	.03	2.75 (.61)	.91	
	유	3.18 (.77)		2.82 (.63)		

** p < .01

중결과, 40, 50대 아버지보다 30대 아버지에게 대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낮게 지각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나 종교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변인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청소년의 종교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표 4> 참조).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차이는 남학생(개방적: 3.36, 역기능적: 2.69)이 여학생(개방적: 3.38, 역기능적: 2.58)보다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가정환경변인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에는 무관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종교가 있는 청소년(1.53)은 종교가 없는 청소년(1.48)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연령, 학력, 종교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

〈표 4〉 가정환경변인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

변인	구분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F 값	평균(표준편차)	F 값	
청소년	성별	남	3.36 (.78)	.05	2.69 (.61)	1.93
		여	3.38 (.81)		2.58 (.62)	
	출생 순위	만이	3.38 (.74)	2.22	2.65 (.59)	.71
		둘째	2.89 (.74)		2.74 (.39)	
		막내	3.44 (.76)		2.62 (.59)	
	외동	3.19 (.99)		2.79 (.82)		
종교	무	3.32 (.81)	.71	2.66 (.56)	.00	
	유	3.40 (.78)		2.66 (.64)		
모	연령	30대	3.44 (.82)	.58	2.67 (.64)	.02
		40대	3.33 (.78)		2.65 (.60)	
		50대 이상	3.40 (.62)		2.63 (.58)	
	학력	중졸이하	3.21 (.74)	1.40	2.86 (.63)	2.34
		고졸	3.39 (.80)		2.80 (.61)	
		전문대졸이상	3.46 (.79)		2.71 (.61)	
	종교	무	3.46 (.79)	1.53	2.57 (.56)	2.19
유		3.33 (.79)	2.69 (.63)			

〈표 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변인	구분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		
		평균(표준편차)	F 값	평균(표준편차)	F 값	
청소년	성별	남	1.52 (.17)	.16	1.53 (.15)	.56
		여	1.51 (.17)		1.51 (.14)	
	출생 순위	만이	1.49 (.17)	1.22	1.51 (.15)	1.31
		둘째	1.56 (.19)		1.57 (.16)	
		막내	1.52 (.17)		1.53 (.15)	
	외동	1.55 (.20)		1.56 (.13)		
종교	무	1.48 (.17)	4.59 *	1.50 (.14)	2.95	
	유	1.53 (.17)		1.54 (.15)		
부	연령	30대	1.54 (.16)	.95	1.52 (.14)	3.12
		40대	1.51 (.17)		1.53 (.15)	
		50대 이상	1.48 (.18)		1.46 (.11)	
	학력	중졸 이하	1.48 (.19)	2.55	1.47 (.14)	1.61
		고졸	1.49 (.16)		1.53 (.15)	
		전문대졸 이상	1.54 (.18)		1.53 (.15)	
	종교	무	1.53 (.17)	1.73	1.52 (.15)	.37
유		1.50 (.17)	1.53 (.15)			
모	연령	30대	1.53 (.16)	.85	1.54 (.15)	.56
		40대	1.50 (.18)		1.52 (.15)	
		50대 이상	1.51 (.17)		1.50 (.18)	
	학력	중졸 이하	1.47 (.17)	1.60	1.49 (.14)	1.40
		고졸	1.52 (.17)		1.53 (.15)	
		전문대졸 이상	1.53 (.17)		1.52 (.15)	
	종교	무	1.50 (.16)	.03	1.52 (.14)	.02
유		1.51 (.18)	1.53 (.15)			

* p < .05

감과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각각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높은 부적 상관($r=.70$ 과 $r=.71$)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과 정적인 상관($r=.37$)을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간에도 정적인 상관($r=.32$)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27$)과 사회성발달($r=.2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24$)과 사회성발달($r=-.19$)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r=.46$)과 역기능적 의사소통($r=-.44$)은 아버지의 의사소통보다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더 큰 상관을 보여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하게 작용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r=.22$)은 청소년의 사회성발달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r=-.12$)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은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줄어들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상관($r=.30$)을 나타내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변인을 분석하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부모-자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청소년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별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발달과의 상관관계

변인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사회성발달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1.00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70 ***	1.00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37 ***	-.16 **	1.00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34 ***	.32 ***	-.71 ***	1.00		
자아존중감	.27 ***	-.24 ***	.46 ***	-.44 ***	1.00	
사회성 발달	.23 ***	-.19 **	.22 ***	-.12	.30 ***	1.00

** $p < .01$

*** $p < .001$

첫째,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차이검증 결과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청소년들은 30대의 아버지보다 40-50대 이상의 아버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훨씬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에 만족도가 높다는 조은경(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종교, 부모의 나이,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청소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청소년의 성별, 출생순위, 종교, 부모의 나이,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사회성 발달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사회성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희(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심혜영(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시각을 고려하진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국한시켜 조사하였으므로 도시와 지방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환경변인에 경제적 지위를 다루어 사회계층별 의사소통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만이 인지한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양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관찰법 및 면접법을 통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

참 고 문 헌

- 권미경(199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호(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학동기 자녀들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체계 특성과 청소년 성격 특성. 인하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스트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1990).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희(1993). 성격변인이 추적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충동성과 신경정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제봉(1996).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1984).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옥(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 인지양식과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현양(1983). 가정의 의사전달 형태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전사춘기 자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영(1992). 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과 부모-자녀 대화개방도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옥(1988).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결남(1989).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및 대화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1989). 어머니의 청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영(199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1990). 어머니 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재(1984).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1992). 부모-청소년간의 대인거리·심리적 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규(1998).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 Walters, R. H. (1963). Dependency Conflicts in Aggressive Delinqu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4, 52-56.
- Barn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n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Foley, V. D. (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ory*. New York: Grune & Steatton.
- Galvin, K. M. & Brommel, B. J. (1982).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smand and Company, 6.
- Kennedy, C. E. (1971). Patterns of parent-student Communi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513.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8, 3-28.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Inc.
Rueter, M. A. & Conget, R. D. (1995). A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